

#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제26호 2017. 1. 23.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발행/발행인:이철우/편집인:한순덕/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전화:02-788-2371~6. 02-788-3081~6. FAX:788-3571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이순영입니다.

신년 인사를 소식지를 통해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회원님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글속기학술세미나'에서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속기를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강의를 있었고, 1박 2일의 캠프에서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열린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인터스테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계 속기인들과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협회 간행물 '속기계 52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표지, 용지와 서체를 변경하였고 회원님들의 소중한 글로 내실 있게 꾸미는 등 '속기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회연수원 위탁교육사업인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을 알차게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4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 속기사들이 참가해서 활력 있는 대회가 되었고, 참가한 회원 각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협회 이사장직을 맡으면서 대외적으로는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협회의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덕분에 대과 없이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마지막으로 14대 임원진은 물러나고, 15대 집행부가 협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차기 집행부와 함께 멋지게 비상하는 대한속기협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시면서 국회정보위원장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이철우 회장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협회 임원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속기협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회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평화롭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이순영**



**총무·재정  
이사**

**오 경 애**

「최고 시청률 경신」, 「실시간 검색어 1위 등극!!」  
 작년 국회방송의 화려한 성적표입니다.  
 “필리버스터”, “국조특” 등의 우리만의 은밀한 전문용어를 이제는 전 국민이 다 알  
 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자 한 자 장인의 손길로 완성한 국회회의록은 지구를 몇 바퀴나 돌고도  
 남겠지요. TV 속에 비친 우리 회원들의 모습을 보고 같은 길을 가고자 문의하는  
 ‘예비 회원’들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제 4년의 이사 임기를 마치려 하니 부끄럽고 아쉬움만 가득합니다.  
 이사장님의 지도와 여러 이사님들, 사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회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이사 최윤정입니다.  
 아직은 ‘2016’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지만 2017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  
 어 갑니다. 지난해 당혹스럽고 실망된 사건들로 인해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조금은  
 품과 마음이 지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란 단어에 가슴이 설레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은 새해는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사업부는 새로운 임원진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비록 임원진 구성은 바뀌  
 겠지만 변함없이 속기인의 화합과 속기계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할 것입니다.  
 회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비롯한 사업부의 행사에 지속적인 관  
 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회원님들의 가정  
 과 사업이 두루 평안하시고 번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업·회원  
이사**

**최 윤 정**

**홍보이사  
한 순 덕**

안녕하십니까? 홍보이사 한순덕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우울했던 한 해가 가고 정유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홍보부에서는 작년에 제52호 속기계를 발간하면서 그동안 사용했던 표지디자인과 서체를 변경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를 기획특집으로 하여  
 ‘필리버스터, 무박 9일간의 기록’ ‘필리버스터, 속기사들만의 뒷이야기’ 등을 담아 보  
 았습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유년 새해는 온 국민이 희망을 갖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힘찬 비상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빛나는 속기사들의 저력을 느끼기도 했고, 흔들림 속에서 조용히 기록의 힘으로 역사를 지켜 내는 ‘우리들’이야말로 참 주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으로 2017년을 맞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중앙위원회 및 IPRS에는 현 이순영 이사장님을 단장으로 오경애 총무·재정이사, 이경숙 협회 회원이 참가하였으며, 국회의정연수원 위탁사업인 지방의회 속기실무자연수과정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51차 인터스테노 총회는 국제속기경기대회(www.intersteno2017.org)가 함께 개최되는 만큼 협회 회원님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독일 베를린에서의 승전보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이철우 회장님 그리고 이순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와 함께한 시간을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하면서, 앞으로 대한속기협회가 더욱 멋지게 도약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제이사  
김영중**

회원 여러분, 2017년 붉은 닭의 해가 시작됐습니다.

닭은 밤이 끝나고 새날이 움을 선언하는 광명의 상징인 만큼 올해는 새 기운을 흠뻑 받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우리 협회에서는 제24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속기 실력을 겨루고 속기의 저변을 확대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감하면서 좋은 분들과 함께 대한속기협회 일을 했던 것은 저에게 참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2017년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글이 생각납니다. 처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사람, 새로운 다짐을 하는 사람 모두 붉은 닭의 활기찬 기운을 받아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자격심사·  
연구위원장  
유회연**



#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10문 10답



김 보 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li> <li>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li> <li>3. 당신의 이상형은?</li> <li>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li> <li>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나는?</li> <li>6. 국회 합격 소감은?</li> <li>7. 첫 월급을 받고 한 일은?</li> <li>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li> <li>9. 선배님들께 한마디!</li> <li>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유내강(外柔內剛)’.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에는 강인함을 지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li> <li>2. 헌혈. 문득 ‘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주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고 헌혈이 그중 하나입니다.</li> <li>3. 부드러운 인상에 가정적인 모습을 가진 분이 이상형입니다.</li> <li>4.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가 고용센터도 방문하고 상담도 하면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li> <li>5. 일반 사기업에 재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li> <li>6. 국회로 출근을 하고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여기 다니고 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li> <li>7. 일부는 부모님께 드리고 일부는 친구들에게 밥 사 주는 데에 썼습니다.</li> <li>8. 체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올 가을이 되기 전까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강인한 체력으로 정기회를 맞이하고 싶습니다.</li> <li>9.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li> <li>10.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국회속기사가 되겠습니다.</li> </ol>
---	--



신현진

1. '초코파이'. 정(情)이 많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2. 저는 간단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매일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나면 다음 날 상쾌한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꾸준히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3. 개그 코드가 잘 맞아서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그리고 통통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4.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와 종이접기처럼 손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했었습니다. 제가 평소 좋아했던 활동과 특기를 고려해 진로를 찾다 보니 속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5.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에 진학했을 것 같습니다.
6. 국회 속기사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뻐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잘될 거라고 저를 응원해 준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7. 가족들과 외식하고 친구들에게도 한턱 냅니다. 또 자취방에 살림살이를 채우는데 썼습니다.
8. 아직까지 운중로 벚꽃축제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는데 돌아오는 봄에는 운중로에서 예쁜 추억 만들고 싶습니다.
9.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10.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밝은 모습을 가지고 항상 에너지 넘치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보람

1. '다이아몬드'. 그 어떤 강한 힘에도 쉽게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처럼 쉽게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2.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1000피스, 2000피스 조각을 흘트려 놓고 하나하나 맞춰 갈 때의 그 성취감이 꽤나 기분이 좋고,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좋습니다.
4. 대학생 때 교수님의 문서작업을 도와 드렸는데 타자가 빠르다며 속기를 추천해 주셔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5.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길을 찾아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합격한 그 자체가 기쁘기도 했지만 저보다 더 행복해하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행복하고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7.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사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근사하고 멋진 선물과 식사를 자주 대접하고 싶습니다.
8.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여행을 가 보고 싶습니다.
9. 선배님들께서 같고 닦아 주신 그 길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 '꿈을 꾸다 그 꿈이 손에 들어오면 직업이 되고, 직업은 일상이 되고, 그렇게 잇고 살아간다, 내가 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꿈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우민

1. 실패나 좌절을 겪어도 다시 일어서는 ‘오펝이’ 같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펝이 처럼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겠습니다.
2. 지금은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예전부터 악기에 관심이 있어서 우선 회사생활에 적응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바이올린을 꼭 배워 보고 싶습니다.
3. 현명하고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하고 손이 예쁘고 어른에게 공손하고 제가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얼굴도 예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 여자친구가 최고입니다.
4. 군대 전역 후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인터넷에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다른 평범한 직장에 취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취직해서 지금보다 덜 만족스러운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합격 발표 직후에 정말 합격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에 스스로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7. 우선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해 드렸고, 친구들에게도 밥을 사 주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이것저것 사서 지금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8. 1년 안에 뭔가를 해야겠다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았고 빠르게 회사생활과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귀담아듣고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9. 부족한 점이 많은 신입이지만 여러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잘 새겨두고 실수도 최소화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며 하루하루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0. 제대로 된 직장생활은 처음이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인 만큼 입사하기 전에 품었던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님들처럼 멋진 국회 속기사가 되기 위한 자질을 키우며 매사에 항상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조은정

1. 저는 ‘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더 친절을 베풀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2.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등산을 하는 것이 취미입니다. 등산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어서 등산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3. 겸손한 마음과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4. 대학 입학 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중에 부모님의 추천으로 속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5. 속기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다른 속기 업무를 하면서도 국회 속기사를 꾸준히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6. 여러 번 시험에 낙방을 한 후에 합격한 만큼 기쁨도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7. 첫 월급은 그동안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제가 평소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사는 데 썼습니다.
8. 1년 동안 국회 속기 업무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조직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항상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실력을 쌓아서 선배님들과 같은 훌륭한 국회 속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10. 지금의 마음가짐을 끝까지 가져가는, 초심을 잃지 않는 국회 속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 홍 현

1. ‘물’입니다. 어떤 그릇에 담아도 모나지 않고 모습을 맞추는 물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뒤에서 모두를 감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 책을 읽거나 영화를 감상하고 소감을 쓰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3. 겸손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상냥하고 이해심 많고 착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근사근한 사람이 좋습니다.
4. 대학 때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직업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속기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5. 딱히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부모님에게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저보다 가족이나 친척분들이 더 좋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7. 적은 액수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고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갚았습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기쁩니다.
8. 업무에 적응해서 큰 실수 없이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9. 미숙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선배님들이 많이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첫 사회생활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훌륭한 국회 속기사가 되고 싶습니다.



황 준 명

1. ‘소나무’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저도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한결같이 갖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는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시즌에는 야구장에 자주 가는 편이고 TV나 인터넷으로도 야구를 매일 시청하곤 합니다.
3. 신중하고 차분하며 배려심 많고 자상하신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4. 인터넷에서 취업 정보와 공무원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속기와 속기직 공무원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속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5. 속기사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다른 직렬의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거나 일반 기업에 취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최종합격자 명단에 제 응시번호가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쁩니다. 첫 출근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며 ‘내가 정말 국회 공무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7. 첫 월급을 받아 일부는 제 생활비로 썼고 나머지 월급은 그동안 저를 키워 주시느라 고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8.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여행을 가서 좋은 추억을 남겨 오고 싶습니다.
9. 신입사원으로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선배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고 의정기록과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든든한 후배가 되도록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10. 아직 많이 배워야 하는 새내기라 때로는 실수도 하겠지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할 것이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는 국회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 제227차 이사회는 2016년 4월 14일에 개최되어 ● 총무·재정이사회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2016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해 총무·재정이사회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총무부의 안대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부서별 보고를 상정하여 사업·회원이사로부터 2016 한글속기학술세미나 일시, 장소, 강사, 소요예산 등 계획(안)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학술세미나의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게 대학교수를 강사로 섭외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이사로부터 지방의회속기실무자 과정에 대한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에 관한 보고가 있었고, 2016년도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 관련 보고를 받고 기간, 장소, 참가인원, 연회비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을 자료화해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보이사로부터 소식지 발간과 속기계 52호 발간 계획, 한글문화큰잔치 참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자격심사·연구위원장으로부터 제24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단체회원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먼저 총무·재정이사로부터 단체회원 건 관련 개요 설명을 들은 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마포해정속기학원과 전주스마트카스속기학원이 대한속기협회 단체회원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제228차 이사회는 2017년 1월 9일에 개최되어 ● 총무부장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제50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총회 개최 일시·장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논의 후 제50회 정기총회를 2017년 1월 23일(월)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6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정상덕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정상덕 감사로부터 회비 회원 증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이 있었고, 논의 후 2016년도 결산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부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고 논의를 거친 후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을 상정하여 총무부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후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논의 후 정관 일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 제24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가 청심국제연수원(경기도 소재)에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총 146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장대섭 국회의사무처 의사국장의 ‘대한민국국회 입법지원조직에 관한 소고’, 송진휘 HIM 컨설팅 대표의 ‘타인 이해와 의사소통’ 주제발표를 듣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개최된 2016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및 IPRS(의회속기그룹, 2016년 10월 5일~8일)에 본 협회에서는 이순영·오경애·이경숙 회원이 참가하였으며 크로아티아의회 방문 등 의회속기 관련 정보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 ◆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52호 속기계(2016년도판)와 소식지 제25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 ◆ 서울, 부산, 인천 등 18개 컴퓨터속기학원에서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한글속기무료강습을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93명이었습니다.
- ◆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24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6월 3일 국회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는 국제경기대회 리얼타임 방식으로 1분에 180자부터 320자까지 8분간 속기 후 수정시간 없이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2차 예선을 거쳐 총 34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1위 김양수, 공동 2위 김명진·허지은 씨가 입상하였습니다.



- ◆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를 본 협회가 2014년부터 시작하여 세 번째로 실시하였습니다. 42개 지방의회, 71명의 속기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국회의정관 105호실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승진

이순영(국회사무처)(2016.8.22)  
 의정기록과 부이사관→의정기록심의관  
 고경효(국회사무처)(2016.8.29)  
 의정기록과 과장(서기관)→부이사관  
 안기철(국회사무처)(2016.8.29)  
 의정기록과 서기관→과장  
 의정기록과 과장(서기관)→부이사관(2017.1)  
 손숙자·오경애(국회사무처)(2016.8.29)  
 의정기록과 속기사무관→서기관  
 김미라·이규진(국회사무처)(2016.8.29)  
 의정기록과 속기주사→속기사무관

◇ 입사

김보라·신현진·이보람·정우민·조은정·  
 지홍현·황준명(국회사무처)(2016.11.7)

◇ 특귀

장미경(국회사무처)(2017.2.예정)

◇ 퇴직

서명순(국회사무처)(2016.7.18)  
 송동우(국회사무처)(2016.7.18)

◇ 공보연수

유희연(국회사무처)(2016.7.12~2017.6.29)  
 조영기(국회사무처)(2016.8.22~2017.6.29)

◇ 교육훈련 및 파견

이다교(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5.8.3~2017.8.2)  
 김은숙(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6.1.25~2018.1.24)  
 정관(국회사무처)  
 국립국어원(2016.8.3~2017.8.2)  
 문선희(국회사무처)  
 국내대학원(2017.2.예정)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1-0160-1418-81 농협 대한속기협회

연 락 처

총 무 부 02)788-3084 김경재(총무부장)  
 02)788-3085 지성숙(재정부장)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회 원 부 02)788-2373 정 숙(회원부장)  
 홍 보 부 02)788-4817 조윤희(홍보부장)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http://www.steno.or.kr)입니다.

자주자주 들려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53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조윤희(☎ 02-788-4817)에게 연락 주세요.

